

군산시 태양광설비 지원

사회적기업 · 사회복지시설에 9kW씩 총 45kW 지원 월 500kWh 소비 시설 기준 월 약 12만원 절감 효과

군산시가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설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31일 군산시 개정면에 위치한 마을기업 대방영농조합법인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사업'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강입준 군산시장, 조성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 한국에너지재단 최영선 사무총장, 기업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9천5백만원을 출연하고 한국에너지 재단에서 주관해 전기요금 경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군산지역 사회적기업(1개소), 사회복지시설(4개소) 등 총 5개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각 시설별로 태양광발전설비 9kW씩 총 45kW가 지원되며, 생산된 전력은 월 500kWh를 소비하는 시설 기준 월 약 12만원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김석근 에너지담당관은 "군산시는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이산화탄소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및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는 지난 31일 군산시 개정면에 위치한 마을기업 대방영농조합법인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사업' 현판식을 가졌다



익산시는 지난 31일 정현을 시장 주재로 29개 읍면동장과 현안업무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익산시, 부서 간 소통체계 강화

익산시가 주요 현안업무와 읍면동의 우수 시책을 공유하며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한다.

시는 지난 31일 정현을 시장 주재로 29개 읍면동장과 현안업무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마련,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객 맞이 등 민생 현안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시는 분청과 읍면동의 밀도 있는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1회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정현을 시장은 "시장의 최종 목적지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다이로인 익산을 만드는 데 있다"며 "늘 시민 가까이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시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등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청과 읍면동이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대비해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관리에 힘쓰는 것은 물론 지속된 집중호우로 지역 시설 하우스 및 주거 취약가구 등에 대한 피해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감사위원회 내년 상반기 출범

조직구성 준비 절차 돌입

도내 최초로 도입 예정인 익산시 감사위원회가 내년 상반기에 본격 출범한다.

익산시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고 지난 30일 공포됨에 따라 조직구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감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인사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의 상임 또는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 결과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위원장 공개 모집 등 조직구성을 위한 준비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감사담당관 1인이 결정하는 기존의 독립제 방식에서 벗어나 3~5인의 감사위원들의 합의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 결과를

를 도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잠정마을 등 환경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행정 불신을 해소해 정령도 향상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도내 최초 감사위원회 도입으로 반부패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저소득층에 냉방용품 지원 '훈훈'

군산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으로 저소득층에 냉방용품을 지원하며 훈훈함을 전달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3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폭염 대책으로 저소득층 6,000세대에 냉방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관 및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이 길어지면서 휴식기 취약계층의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워진 데 따

른 대책이다. 냉방용품으로는 쿨매트 2,000개와 양우산 4,000개로 쿨매트는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 65세 이상에게, 양우산은 중위소득 80% 이내의 여름철 주거냉방이 취약한 세대에 지원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강입준 군산시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

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자택에서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이웃돕기 성금으로 이뤄진 만큼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웃돕기 성금 참여방법은 전 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기탁할 수 있으며, 기탁된 성금·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명으로 전달할 수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내년도 예산 최대 확보 '분주'

한국판 뉴딜 핵심 프로젝트 대응 '소부장' 분야 추가 발굴

익산시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핵심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유희숙 부시장 주재로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29일 기재부 2차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도출된 쟁점을 파악하여 기재부 심의가 종료되는 남은 기간 동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핵심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지역의 섬유·석재·보석·식품산업 등 제조 분야에 대한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등 제조혁신을 가능하게 할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익산형 뉴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국립강염병연구소와 국립회기질원의료원의 익산시 유치전력과 당위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국내 최대 의료비

오 R&D 도시건설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시는 올해 국가예산 신규사업인 '전북 IoT 산업안전체험 교육장 건립사업'과 '스마트 농업 벤처창업 캠퍼스 설치사업', '익산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허브 구축'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집중관리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잠점마을 살리기 사업과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사업, 왕궁현업축사 전량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등 환경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재부 3차심의회와 국회단체 전라를 논의했다.

유희숙 부시장은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발판을 만들겠다"며 "기재부 예산심의회가 마무리되는 8월 말까지 정부안 최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 및 정치권과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 SW제협형 특강 호응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SW제협형 특강을 진행 중인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SW중심대학사업단이 해당 학교별로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이어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특강을 시작한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7월 중에 김제 남양초등학교와 전북여고등학교, 전주서곡중학교에서 차례로 특강을 펼쳤으며, 특히 학교별로 맞춤형 주제를 정해 참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3. 4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김제 남양초등학교에서는 '사물인터넷 동작 원리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 이해'를 주제로 스마트 팜을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나 다른 PC를 통해 센서값을 디스플레이하고, 모니터와 LED 등을 제어하는 체험 실습과 더불어 인공지능 주행 로봇인 알티노 제어를 통한 자율주행 체험 및 미션 수행을 진행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익산=정양원 기자

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 역량강화 읍면 순회교육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역량강화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농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올해 중단됐던 농촌지도자회 역량강화 순회교육을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성산면 농촌지도자회를 시작으로 640여 농촌지도자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아생진드기 감염 예방과 농작업 재해 예방교육과 더불어 보건소 건강관리과의 협업을 통해 혈압, 당뇨, 체중 및 농업인 낙상 예방 및 뇌졸중 자가진단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또 이번 영농 기술교육과 농정사업 안내 홈페이지 개편 전 단계 등 전반적인 지도사업과 농정 홍보를 통한 농업인들의 운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